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Music Biz Weekly Brief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14호
2009.3.13~2009.3.19

I. Analysis Overview 1

II. 국내 동향 4

1. 산업정책 및 제도 4
2. 음악업계 동향 7
3. 소비자동향 9
4. 언론동향 15
5.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17

III. 해외 동향 20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20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22

I. Analysis Overview

I. Analysis Overview 1

II. 국 내 동 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김평수 연구원] 4

1-1. 문화부,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등 정부입법 추진 4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분쟁조정제도 등 도입 추진, 한국 대중문화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1-2. 주요 온라인 음원유통사, 가격 담합혐의로 고발당해 4
경실련, SK 멜론, KTF 도시락, LG텔레콤 뮤직온,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OSP)가 동일한 가격의 동일 상품만 취급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1-3.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업그레이드 6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개발을 이달 말 착수, 주요 단속대상은 음원 저작물. 이후 'ICOP'을 업그레이드해 영상저작물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저작물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

2. 음악업계 동향 [김훈 연구원]..... 7

2-1. 하나은행, 음악 다운로드 할인 '하나 멜론카드' 출시 7
하나은행은 국내 디지털음원 시장의 선두주자인 SK텔레콤 자회사 (주)로엔 엔터테인먼트와 제휴하여 음악 다운로드 시 할인받을 수 있는 『하나 멜론 카드』를 출시

2-2. 싸이월드, 불법음원 차단 시스템 도입..... 7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주형철)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음원 저작물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

2-3. '꽃보다 남자' 신드롬에 OST와 포토악보집 큰 인기..... 8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꽃보다남자' OST는 물론 최근 출시된 포토악보집까지 관련 상품이 줄줄이 대박

2-4. 기타 단신 등 9
○ 서태지 '줄리엣', 발매 9일째 음반판매차트 1위 석권
○ 영화음악으로 솔한 상 거머쥔 '젊은 거장' 작곡가 이기수
○ 클래식 음반 판매 1년 새 43% 늘린 기획의 힘
○ 출판계에서도 대폭발 일으킨 빅뱅

3. 소비자 동향 [서상아 연구원]..... 9

3-1. 슈퍼주니어 발매 첫 주 판매량 5만 장 육박 9

1년 반 만에 돌아온 슈퍼주니어가 3집 발매와 함께 4만7천 장의 높은 판매고를 올리면서 2009년 최고의 주간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또한 차트 내에 진입한 음반들의 각각 판매량이 거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음반 시장의 봄기운을 느낄 수 있던 한 주였다.

3-2. 다비치 전 차트 석권 13

지난주부터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던 다비치의 신곡 <8282>가 모든 음원사이트를 석권하였다. 또한 타이틀곡 이외의 다양한 곡들이 더블어 차트 진입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음원여왕의 탄생이 이뤄지는 한 주였다.

4. 언론 동향 [박진석 연구원]..... 15

4-1. 에픽하이 새 앨범, 팬들에게 직접 유통된다 15

새 앨범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인기 그룹 '에픽하이'는 18일자 언론 보도를 통해 기존의 유통구조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 활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이번 새 앨범은 책과 노래가 어우러진 '북 앨범' 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4-2. 장기하와 얼굴들, 한국 대중 음악상 3관왕 15

우여곡절 끝에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열린 제 6회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장기하가 최우수 록 노래 부문,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 남자 부문, 올해의 노래 상까지 3개 부분을 수상하며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4-3. 주요 단신 16

- 엠넷 '퀵매니저', 원 클릭으로 MP3 자동 다운로드
- 보아 美정규 1집, 아이튠스 톱앨범차트 11위
- 서태지 vs 슈주, 음반 판매 1위 다툼 승자는?...박빙 경합 중
- 소녀시대, 올 첫 10만장 돌파.. 2연속 10만장 판매

5. 행사 및 협회 소식 [장정희 연구원] 17

5-1. 디지털 뮤직 어워드,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수상..... 17

이번 32회 디지털 뮤직 어워드의 <Song Of The Month>는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꽃보다 남자 [OST])로 선정

5-2. 푸조, '2009 통영 국제 음악제' 공식 후원 18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통영 국제 음악제는 오는 3월 27일 알렉산더 리브라이히(Alexander Liebreich)가 지휘하는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개막연주회를 시작으로 4월 2일까지 7일 동안 진행

5-3. [입찰] 2009 음악산업 동향분석 사업..... 18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내외 음악산업 관련 제도·정책 변화, 주요

업계 동향, 기술개발 등 현황을 분석하여 급변하는 음악산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009 음악산업 동향분석 사업' 관련 위탁연구기관을 모집

5-4. '서울재즈페스티벌 2009' 5월 14일 개막..... 19
 국내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재즈페스티벌 2009'가 오는 5월 14일부터 나흘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Ⅲ. 해 외 동 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고민정, 장정희]..... 20

1-1. 소비자들의 음원 소비 트렌드 조사결과 발표..... 20
 미국시장조사 전문업체인 NPD는 최근 소비자들의 음원 소비 트렌드 조사 결과에서 CD 구매자 수는 하락한 반면 디지털음원을 다운로드한 소비자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1-2. 음악과 게임을 동시에! Loudcrow 출시 20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는 동안 게임이나 SNS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인 Loudcrow가 출시되었다.

1-3. 주요 단신..... 21
 ○ EMI, 마틴 루터킹의 유산에 관한 계약 체결
 ○ Nelly Furtado가 자신의 음반회사 설립
 ○ CC의 App가 100만개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블랙베리 버전 출시
 ○ iPhone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음악적 기능 강화

2.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고민정, 김평수]..... 22

2-1. 비, 800만달러 배상판결에 미국활동 악영향 우려 22
 하와이 공연 취소관련 소송으로 인한 재판에 참석한 가수 비와 비의 전 소속사 JYP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으로부터 공연을 취소한 손해배상으로 약 808만 달러(한화 약112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 받아.

2-2. 서울시 한류스타 팬 사인회 및 쇼케이스 등 명동에서 오픈..... 22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글로벌 문화체험에서부터 관광·축제·쇼핑·여행, 그리고 문화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서울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가 16일 명동에서 문을 연다.

Ⅱ. 국내 동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1-1. 문화부,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등 정부입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연예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소위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해외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부문이 최근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반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 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 대중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하여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여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 취업, 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치, 대중문화종사자간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검토된다. 올해 8월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9-03-18

1-2. 주요 온라인 음원유통사, Non-DRM 가격 담합혐의로 고발당해

SK텔레콤의 자회사가 서비스하는 멜론, KTF 도시락, LG텔레콤 뮤직온,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OSP)가 동일한 가격의 동일 상품만 취급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이들 기업을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해 판매토록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멜론, 도시락, 뮤직온, 벅스, 엠넷, 소리바다 등에서는 디지털저작권관리가 장착되지 않은 상품

(Non-DRM)이 이름만 다를 뿐 판매조건이나 가격이 모두 같다. DRM이 없는 디지털 음원은 재생기나 기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상품출시 시기(2008년 8월 경)와 가격인상 시기(2009년 1월 경)가 거의 유사하며, 동일한 판매 가격과 할인조건(1천원 할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Non-DRM 상품 및 가격

상품 사이트	① 다운로드 (40곡)	② 다운로드(40곡) +무제한 음악감상	③ 다운로드(150곡)	④ 다운로드(150곡) +무제한 음악감상
멜론	MP3 40	MP3 40 플러스	MP4 150	MP3 150 플러스
도시락	다운로드파티 소유형 프리 40	자유감상파티 소유형 프리 40	다운로드파티 소유형 프리 40	자유감상파티 소유형 프리 150
유직온	MP3 40	MP3 40 콤보	MP3 150	MP3 150 콤보
엠넷	월 40곡 다운로드	월 40곡 다운로드 +음악감상	월 150곡 다운로드	월 150곡 다운로드 +음악감상
벅스	월 40곡	월 40곡+듣기	월 150곡	월 150+듣기
소리바다	다운로드 40곡	음악감상 +다운로드 40곡	다운로드 150곡	음악감상 +다운로드 150곡
가격	5,000	7,000	9,000	11,000

국내 음원 시장은 로엔엔터테인먼트, 아인스디지털, 엠넷미디어, KTF뮤직 등 대형 음반유통사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메이저 직배사를 중심으로 한 20여개의 음반제작·유통사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9월 '디지털음악발전협의회'(이하 디발협)를 결성했고,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로 이름을 바꿨다.

경실련은 "이들은 절대적인 시장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해 문화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같은 음원 다운로드 상품을 비슷한 시기에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음원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한 게 아니라 이용 허락권만 부여한 만큼, 재판매 가격 결정 같은 소매 시장 개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복잡한 음원 권리관계의 특성상 다수 권리자와 다수 OSP간 개별 계약은 필수적인데, 다수의 권리자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다수의 권리자와 다른 계약 조건으로 계약했음에도 소비자에 판매되는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는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 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 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나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면 상품개발이나 가격 같은 경쟁은 불가능해 진다"면서 왜곡된 디지털음원유통시장을 바로잡고 다양한 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의 계기를 만들려면, 공정위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격 담합 의혹' 음반유통사 고발, 매일경제, 2009-03-18

어딜 가나 같은 가격"...멜론·소리바다 등 공정위 고발당해, 조이뉴스24, 2009-03-18

경실련, '가격담합' 의혹 온라인 음악사이트 고발, 굿데이스포츠, 2009-03-18

1-3.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업그레이드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이경윤)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ject, 이후'ICOP-II')개발을 이달 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저작물의 확산 주체가 포털, UCC로 이동하고 있는데다 영상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어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을 영상물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불법저작물 단속업무를 위해 'ICOP'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 분야의 'ICOP' 사업은 2008년 6월~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마쳤다.

'ICOP'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 주요 단속대상은 음원 저작물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ICOP'을 업그레이드해 영상 저작물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저작물의 단속체계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과 UCC까지 단속대상에 포함하면서 모니터링 효과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나 방송 등의 특징점(고유의 특징적인 값)을 가지고 영상 저작물을 인식하는 시스템의 개발, 영상 저작물 특징점 및 메타 DB 구축, 그리고 포털과 UCC를 대상으로 한 영상 저작물 인식 시스템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영상 분야의 'ICOP-II' 구축에 대한 사업자선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한 후,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시스템 구축을 최종 완료할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1년 365일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적발된 저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DB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최근 영화 '위낭소리'의 불법 동영상 유출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제 2의 위낭소리 피해의 재발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사이트]

저작권보호센터, www.cleancopyright.or.kr 2009-03-16.

2. 음악업계 동향

2-1. 하나은행, 음악 다운로드 할인 '하나 멜론카드' 출시

하나은행은 국내 디지털음원 시장의 선두주자인 SK텔레콤 자회사 (주)로엔 엔터테인먼트와 제휴하여 음악 다운로드 시 할인받을 수 있는 『하나 멜론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 멜론카드』는 인터넷 음원 사이트인 멜론(www.melon.com)에서 월정액 요금제 이용 시 음악관련 모든 판매 콘텐츠를 5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상품 출시 기념으로 멜론 사이트에서 『하나 멜론카드』를 발급받고 '콘텐츠 3개월 이용권'을 구입하면 2,500원으로 3개월간 멜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카드를 신청한 선착순 5,000명에게 영화 예매권과 소니 바이오 노트북 컴퓨터 등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멜론 사이트 방문자수 추정 결과, 국내 디지털 음악 사용인구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며 현재 약 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존 멜론 유료회원이 『하나 멜론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간 35,000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멜론카드 출시 보도자료 [하나은행 2009.03.17]

하나은행, 음악 다운로드 할인 '하나 멜론카드' 출시 [YTN 2009. 3. 16]

2-2. 싸이월드, 불법음원 차단 시스템 도입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주형철)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음원 저작물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16일부터 미니홈피, 광장, 클럽 등 서비스 전체에 적용된다.

SK컴즈는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전문 업체인 뮤레카(대표 김주엽)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부터 3차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뮤레카가 제공하는 '콘텐츠 모니터링 센터(CMC)'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파일에 포함된 음원의 저작권 DNA를 추출, 국내외 120만곡의 음원 DB와 비교해 음원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준다. 이를 통해 불법 음원으로 걸러진 파일은 다운로드 및 재생이 제한된다. MP3, OGG, WMA, WAV, ACC 등 대표적인 음원파일 외에 압축파일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저작권에 민감한 국내 최신 가요 등 모니터링 성공률이 매우 높았다. SK컴즈는 고도화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기술적 조치 외에도 400여명 규모의 모니터링 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음원 필터링 시스템은 싸이월드를 시작으로, 네이트, 이글루스 등 SK컴즈의 전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이며, 음원 외에 동영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싸이월드, 불법음원 차단 시스템 도입 [에이빙뉴스 2009.03.19]
- 싸이월드, 불법음원 차단 필터링 시스템 도입 [보안뉴스 2009.03.19]
- 싸이월드, 불법음원은 이제 그만! [아이비타임즈 2009.03.19]

2-3. '꽃보다 남자' 신드롬에 OST와 포토악보집 큰 인기

온통 '꽃보다 남자' 열풍이다. 가히 신드롬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꽃보다 남자' OST는 물론 최근 출시된 포토악보집까지 관련 상품이 줄줄이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음악교재출판업체 뮤직트리(www.adventure.co.kr)가 지난 5일 출시한 꽃보다남자 OST 포토악보집은 드라마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OST를 직접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악보집이다. 이 악보집에는 내 머리가 나빠서(SS501), 알고 있나요(썸데이), Stand by me(샤이니), 파라다이스(T-MAX), Lucky(애슐리), 조금은(서진영) 등 실제 드라마에 쓰인 9곡의 OST가 수록돼 있다.

중·하급 정도의 연주 난이도도 악보집의 인기 이유 중 하나다. 쉬운 기타 코드와 피아노 악보로 편곡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어, 드라마는 보지 못했지만 OST는 익숙한 일반 사람들까지 악보집을 찾고 있다.

뮤직트리 관계자는 "이번 피아노&기타 악보집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주요 타겟 고객으로 쉬운 연주가 특징이며, 벌써부터 피아노학원 및 각종 초등학생 대상 이벤트의 증정상품으로도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꽃보다남자 OST '신드롬'으로 포토악보집도 열기 몰이~! [한국재경신문 2009.03.19]
 보도자료 [미드무로 2009.03.18]

2-4. 기타 단신 등

○ 서태지 '줄리엣', 발매 9일째 음반판매차트 1위 석권

성공 외에도 누리꾼들과 각종 인터넷 록 음악 매니아 사이트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어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관련기사]

서태지 '줄리엣', 발매 9일째 음반판매차트 1위 석권 [마이데일리 2009. 3. 20]

○ 영화음악으로 술한 상 거머쥔 '젊은 거장' 작곡가 이기수

2001년 한류에 불을 지핀 드라마 '겨울연가'의 메인 테마 '처음'을 시작으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서 우진의 테마인 'Cries and whispers'를 쓰면서 칸 영화제에 자신의 음악을 알린 이기수는 대중상, 대한민국영화대상, 영평상 등을 거머쥐었다.

[관련기사]

영화음악으로 술한 상 거머쥔 '젊은 거장' 작곡가 이기수 [쿠키뉴스 2009. 3. 15]

○ 클래식 음반 판매 1년 새 43% 늘린 기획의 힘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인기에 발맞춘 앨범, 피겨 요정 김연아 열풍을 음악으로 끌어당긴 음반이 히트를 쳤다.

[관련기사]

클래식 음반 판매 1년 새 43% 늘린 기획의 힘 [중앙일보 2009. 3. 20]

○ 출판계에서도 대폭발 일으킨 빅뱅

지난 1월 말 출간된 빅뱅의 '자기 계발서'인 '세상에 너를 소리쳐'가 출간한지 보름 만에 17만 부의 판매고를 올려 빅뱅을 '베스트셀러작가'로 만드는 등 출판계에 빅뱅을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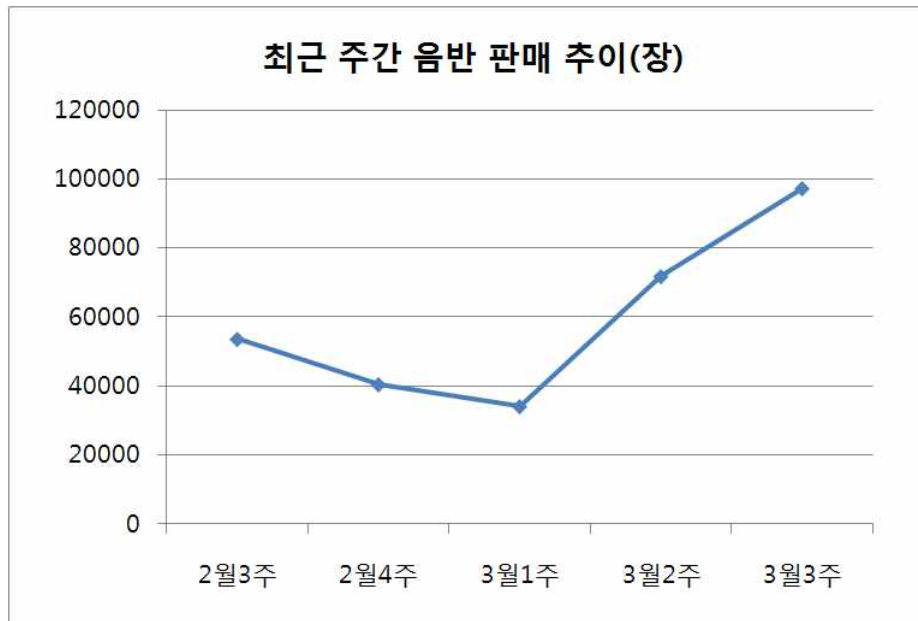
[관련기사]

출판계에서도 대폭발 일으킨 빅뱅 [조선일보 2009. 3. 18]

3. 소비자 동향

3-1. 음반동향 : 슈퍼주니어 발매 첫 주 판매량 5만 장 육박

3월 3주(3월 12일 ~ 3월 18일) 음반동향은 대폭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주보다 판매량이 더욱 상승하여 주간 판매량이 10만 장을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올해 들어 최고의 주간 판매량으로 2주 연속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3월 12일 - 3월 18일)

이처럼 큰 폭의 음반 판매량 상승을 이끌어 낸 주역은 바로 슈퍼주니어이다. 지난 3월 13일 발매된 이번 앨범은 거의 1년 반 만에 나온 3집 앨범으로 그동안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여러 유닛으로 나뉘어 활동했던 멤버들이 다시 모여 만든 음반이다.

팬들의 오랜 기다림을 반영이라도 하듯 슈퍼주니어 3집의 발매 첫 주 판매량은 4만7천 장을 넘어 지난주 서태지 음반의 주간 판매량 3만천 장 보다 한참 앞서는 수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아이돌 가수의 위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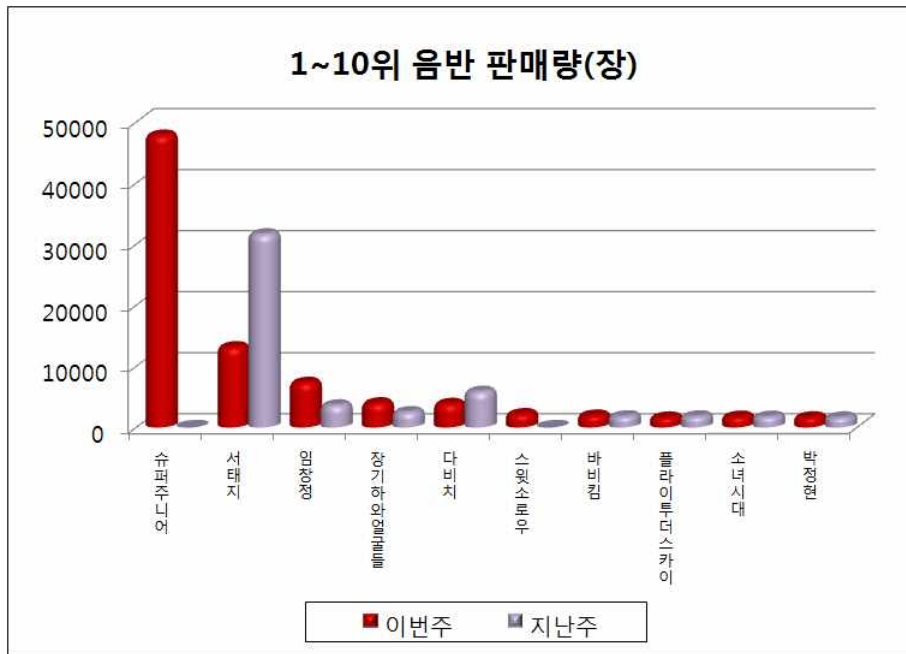
이와 함께 지난주 발매된 서태지의 음반 역시 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였다. 또한 지난주 발매되어 하루밖에 집계되지 않았던 임창정의 새 음반은 지난주 판매량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수치를 보였다.

저력 있는 가수들의 신보 음반 발매가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음반 판매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경우 2월 음반 발매 후 판매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잠시 보였지만 다른 가수들의 음반 출시와 함께 전체 음반 판매량이 상승하면서 다시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바비킴, 박정현, FT아일랜드 등의 음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금주 판매량	전주 판매량	발매일
1	진입	슈퍼주니어 3집 / Sorry, Sorry(A버전)	에스엠	가요	47857	0	2009-03-13
2	▼1	서태지 / Atom os Part Secret	예당	가요	13189	31,684	2009-03-10
3	▲1	임창정 11집 / Return To My World	로엔	가요	7357	3,658	2009-03-11
4	▲2	장기하와 얼굴들 1집 / 별일 없이 산다	봉가봉가	가요	4009	2,551	2009-02-27
5	▼2	다비치 / 8282	엠넷	가요	3901	5,899	2009-03-04
6	진입	스윗소로우 2.5집 / Songs	엠넷	가요	2,227	0	2009-03-12
7	-	바비킴 / Special Album	도레미	가요	1,984	1,849	2009-01-12
8	-	플라이 투 더 스카이 8집 / Decennium	로엔	가요	1,649	1,842	2008-02-10
9	-	소녀시대 미니앨범 1집 / Gee	에스엠	가요	1795	1795	2009-01-07
10	-	박정현 7집 / 10 Ways TO Say I Love You	로엔	가요	1687	1660	2009-02-26
11	▲6	에프티 아일랜드 미니앨범 / Jump Up	도레미	가요	1498	742	2009-02-17
12	-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1491	1309	2008-11-05
13	▼8	신혜성 3집 side2 / Keep Leaves	예당	가요	1444	2713	2009-02-16
14	▼3	이선희 14집 / 사랑아	엠넷	가요	1201	1390	2009-02-26
15	▲1	동방신기 4집 / Mirotic	에스엠	가요	1147	796	2008-09-26
16	▲10	이문세 / Memories	예전	가요	985	411	2004-05-21
17	▼4	카라 미니앨범 2집 / Pretty Girl	엠넷	가요	978	1147	2008-12-04
18	▼4	다이아믹듀오 / Ballad For Fallen Soul Part 1	엠넷	가요	958	985	2009-02-25
19	▼4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931	877	2008-11-14
20	진입	조원선 1집 / Swallow	엠넷	가요	877	0	2009-03-16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3월 12일 - 3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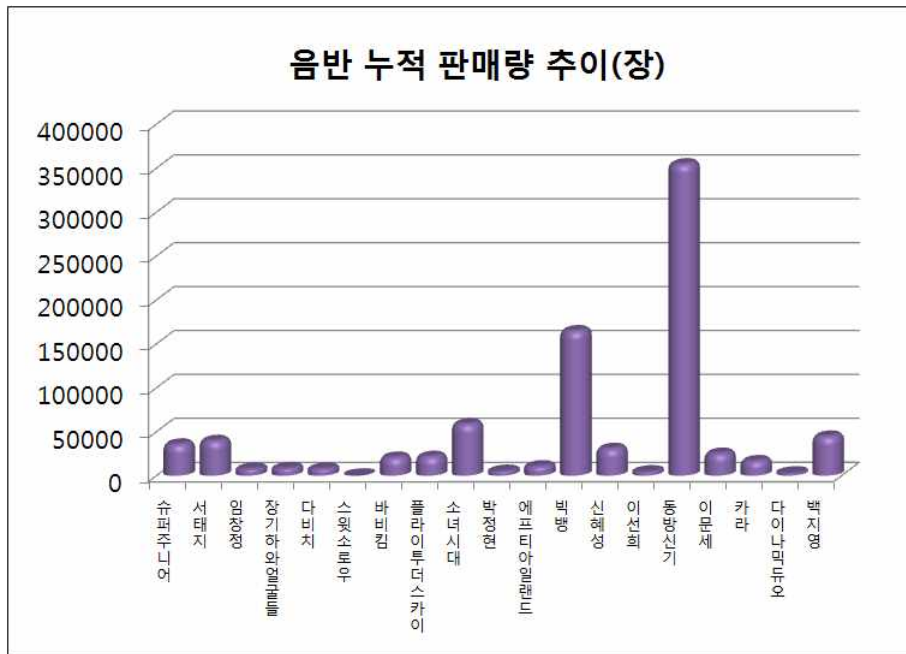
이번 주 음반 차트 상위권 순위를 살펴보면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지만 슈퍼주니어, 스위트소로우 등이 새로 진입하면서 신보 음반의 강세를 더하고 있었다. 슈퍼주니어의 독주 속에서 서태지, 임창정이 뒤를 이었고 장기하와 얼굴들, 다비치, 바비킴 등 다양한 음반들이 상위권 차트 내에 있었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3월 12일 - 3월 18일)

지난주의 경우 상위권 판매량의 급격한 상승과는 다르게 낮은 판매량을 기록하였던 하위권 차트는 이번 주 비교적 높은 판매고를 보이고 있었다. 20위 음반의 판매량이 거의 900장에 육박하고 있어 보통 때에 비해 300장 이상의 판매량 상승이 일어난 한 주였다.

누적 판매량에서는 지난주와 같이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동방신기, 빅뱅의 앨범이 여전히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었다. 올해 발매된 음반의 경우 아직까지 높은 누적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음반은 없지만 슈퍼주니어, 서태지, 소녀시대 등의 음반이 벌써 5만 장을 육박하고 있어 작년에 이은 활발한 음반 판매량이 기대되고 있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 발매일 - 3/14일, 단 이문세 음반의 경우 2008년 1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의 누적 판매량)

3월 3주의 음반동향 차트는 1년 반 만에 발매된 슈퍼주니어의 새 앨범이 4만7천 장의 높은 판매고를 올리면서 올해 들어 최고의 주간 음반 판매량 기록이 수립되었다. 또한 차트 내에 진입한 음반들의 각각 판매량이 거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음반 시장의 봄기운을 느낄 수 있던 한 주였다.

3-2. 음원동향 : 다비치 전 차트 석권

3월 3주의 음원동향은 지난주 차트로 진입한 다비치의 <8282>가 전 차트를 석권하면서 새로운 음원강자의 탄생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전 차트 석권은 소녀시대의 <Gee>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데뷔 2년차의 여성 듀오 다비치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비치의 음원은 타이틀곡 <8282>뿐만 아니라 같은 음반에 수록된 <사고쳤어요>라는 곡 역시 멜론을 제외한 3개의 사이트에서 2위와 3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사랑이 우습니>도 차트에 진입하여 기존에 계속되었던 소녀시대의 음원강세와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다비치의 뒤를 이어 김종국의 <행복병>과 슈퍼주니어의 <소리소리>가 새롭게 진입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트마다 집계날짜가 달라 음원순위의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음원에서 역시 신곡의 빠른 상승세를 느낄 수 있었다.

순위	박스 3/5 ~ 3/11	엠넷 3/9~ 3/15	도시락 3/9~ 3/15	멜론 3/8~ 3/14
1	다비치 / 8282	다비치 / 8282	다비치 / 8282	다비치 / 8282
2	김종국 / 행복병	다비치 / 사고쳤어요	슈퍼주니어 / 소리소리	소녀시대 / Gee
3	다비치 / 사고쳤어요	슈퍼주니어 / 소리소리	다비치 / 사고쳤어요	카라 / 허니
4	럼블피쉬 / 한사람을 위한 마음	휘성 / Insomnia	소녀시대 / Gee	휘성 / Insomnia
5	휘성 / Insomnia	소녀시대 / Gee	휘성 / Insomnia	화요비 / 반쪽
6	카라 / 허니	카라 / 허니	임창정 / 오랜만이야	Fly To The Sky / 구속
7	박정현 / 비밀	김종국 / 행복병	카라 / 허니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8	SS501 / 애인만들기	임창정 / 오랜만이야	에이트 / 심장이 없어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9	소녀시대 / Gee	화요비 / 반쪽	김종국 / 행복병	김경록 / 이젠 남이야
10	김경록 / 사랑쟁이	에이트 / 심장이 없어	화요비 / 반쪽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11	화요비 / 반쪽	Fly To The Sky / 구속	Fly To The Sky / 구속	린 / 사랑 다 거짓말
12	V.O.S / 이별보다 슬픈 말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럼블피쉬 / 한사람을 위한 마음	애프터스쿨 / AH
13	Fly To The Sky / 구속	브랜뉴데이 / 살만해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바비킴 / 사랑 그놈
14	노블레스 / 이별통보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티맥스 / Wish Ur My Love	티 / 떠나지마
15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이승철 /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다비치 / 사고쳤어요
16	티맥스 / Wish Ur My Love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다이나믹듀오 / Beyond The Wall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17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서태지 / 줄리엣	세븐 / Girls	김종국 / 행복병
18	남규리 / 보고싶은 얼굴	바비킴 / 사랑 그놈	비 / 9월 12일(Acoustic Ver.)	케이윌 / 러브119
19	다비치 / 사랑이우습니	애프터스쿨 / AH	서태지 / 줄리엣	임창정 / 오랜만이야
20	주현미, 소녀시대 / 짜라자짜	노블레스 / 이별통보	애프터스쿨 / AH	럼블피쉬 / 비와 당신

이번 주 차트의 상위권 특징으로는 다비치의 초강세 속에서 신곡의 차트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신곡들의 진입은 모든 사이트에서 일괄적인 패턴을 보이기보다는 각 사이트마다 진입한 곡의 종류나 순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음원사이트별로 시행되는 프로모션 방법에 따라 일시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위권 순위의 경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존 곡들은 하락세와 정체기를 보이고 있었다. 음반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태지의 신곡 <줄리엣>이 음원 차트로 진입하기는 했지만 음반과 같은 강한 면모는 찾기 어려웠다.

3월 3주의 음원동향은 지난주부터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던 다비치의 신곡 <8282>가

모든 음원사이트를 석권하고 타이틀곡 이외의 다양한 곡들이 더불어 차트 진입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음원여왕의 탄생이 이뤄지는 한 주였다.

4. 언론 동향

4-1. 에픽하이 새 앨범, 팬들에게 직접 유통된다

새 앨범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인기 그룹 '에픽하이'는 18일자 언론 보도를 통해 기존의 유통구조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 활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이번 새 앨범은 책과 노래가 어우러진 '북 앨범' 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들이 발표한 새로운 유통 방식이란 다름 아니라 가수와 팬 사이의 직거래 방식 도입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해외에서 마돈나, 라디오헤드 등이 선보인바 있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레이블을 설립하여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거래 하는 유통방식을 말한다.

에픽하이는 이 레이블 홈페이지인 '맵더소울닷컴(mapthesoul.com)'을 21일 오픈한다고 밝혔으며 이 홈페이지는 단순히 프로모션 전용 사이트가 아닌 다양한 콘텐츠가 확보된 팬과 음악인들을 위한 사이트가 될 것임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또 영국 업체가 개발한 미디어 2.0형식 웹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물론 그들의 유통 방식은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다. 우선 직거래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음반의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제작자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앨범을 소비자가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케팅의 부재가 실패로 이어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중가수로는 시도하기 어려운 유통방식의 차용인만큼 어떠한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음악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대중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 에픽하이, 작지만 커다란 도전! [스포츠칸 2009-03-18]
- 에픽하이, 기존 유통판매 거부 '독자행보' [한국일보 2009-03-18]
- 에픽하이, 팬들에게 직접 음반 유통 [서울신문 2009-03-18]
- 에픽하이, 독자 레이블 설립...직거래로 음반 유통 [노컷뉴스 2009-03-18]

4-2. 장기하와 얼굴들, 한국 대중 음악상 3관왕

우여곡절 끝에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열린 제 6회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장기하가 최우수 록 노래 부문,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 남자 부문, 올해의 노래 상까지 3개 부분을 수상하며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장기하는 지난해 말 EBS-SPACE '공감' 그리고 '쌈지사운드페스티벌'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주목받기 시작, 싱글 앨범 싸구려 커피를 1만장 이상 판매하며 네티즌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었고, '장교주', '인디계의 서태지' 등의 별칭과 함께 공중파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현하며 홍대 앞 인디밴드 출신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러한 활동의 결실은 이번 6회 한국대중음악 시상식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과 1년 남짓의 활동을 펼친 그는 다른 쟁쟁한 선배 뮤지션들을 제친 것은 물론 아이돌 그룹 빅뱅과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3개의 트로피를 받게 되는 이변을 연출한 것이다.

장기하의 인기는 지나치게 획일화 되어가는 대중음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홍대 앞 인디씬에도 한줄기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반복되는 후크송, 천편일률적인 소재들에서 벗어나 비교적 새로운 음악을 펼치는 재야 음악인들에게 대중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음악 산업의 자극제로서 긍정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5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음악성을 인정받은 밴드 '언니네 이발관' 역시 최고상인 올해의 음반 상을 비롯하여 3개 부분을 석권하며 이목을 끌었고, 위기를 겪었던 한국 대중음악상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 속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관련기사]

장기하, 인디음악의 역습 [프레시안 2009-03-18]
 "인디음악이 주류로 나갈 수 없는 현실" [뉴시스 2009-03-18]
 햇살 받는 인디음악, 그래도 여전히 춥다 [뉴시스 2009-03-18]

4-3. 주요 단신

○ 엠넷 '퀵매니저', 원 클릭으로 MP3 자동 다운로드

뮤직 포털 엠넷이 음악파일 구매에서부터 디바이스로의 전송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게 한 다운로드 전용 프로그램 '퀵매니저'를 지난 13일 선보였다.

[관련기사]

엠넷 '퀵매니저',원 클릭으로 MP3 자동 다운로드 [일간스포츠 2009-03-19]

○ 보아 美정규 1집, 아이튠스 톱앨범차트 11위

가수 보아가 18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정규 1집 '보아(BoA)'를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에서 동시에 공개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호평을 얻고 있으며 팝 장르 톱 앨범 차트에서 11위에 오르기도 해 앞으로의 선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보아 美정규 1집, 아이튠스 톱앨범차트 11위 [스타뉴스 2009-03-18]

○ 서태지 vs 슈주, 음반 판매 1위 다툼 승자는?...박빙 경합 중

가수 서태지와 그룹 슈퍼주니어가 음반 판매량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서태지 vs 슈주, 음반 판매 1위 다툼 승자는?...박빙 경쟁 중 [이데일리 2009-03-16]

○ 소녀시대, 올 첫 10만장 돌파..2연속 10만장 판매

9인조 걸그룹 소녀시대가 국내 모든 가수들을 통틀어 올 첫 10만 장 돌파 가수(팀)가 됐다.

[관련기사]

소녀시대, 올 첫 10만장 돌파.. 2연속 10만장 판매 [스타뉴스 2009-03-17]

5. 행사 및 협회 소식 등

5-1. 32회 디지털 뮤직 어워드,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이달의 노래상 수상

이번 32회 디지털 뮤직 어워드의 <Song Of The Month>는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꽃보다 남자 [OST])로 선정이 되었다.

<내 머리가 나빠서>는 이번 수상의 기준 월인 2월이 앨범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약 11만 곡의 BGM이 판매되어 Song Of The Month를 수상하게 되었다.

SS501은 기존 멤버 중 김규중, 허영생, 김형준 3명만이 특별하게 만든 Special Album에 이어 꽃보다 남자 OST 참여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수상 곡뿐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후속 곡 <애인 만들기> 역시 현재 BGM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 최근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한편, 가장 괄목할 만한 신인에게 주어지는 <Rookie Of The Month>는 메이다니의 몰라링 (Feat. 2AM)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32회 디지털 뮤직 어워드에서는 International Artist Of The Month 와 탐음 매니아상이란 2개의 수상 항목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International Artist Of The Month는 Global한 음악 시상을 통해 디지털 뮤직 어워드의 공정성 있는 어워드로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취지와 함께 모든 아티스트들의 디지털 뮤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이 제정되었다.

수상 선정 기준은 해외 아티스트 중 동일 기간 내 BGM 차트 최상위 해외 곡의 아티스트로 선정되며, 이 기준에 의해 처음 제정된 이번 International Artist Of The Month는 해외 아티스트 부문 차트 1위이며 2월 BGM 전체 차트 16위인 Lily Allen의 <F**k You>로 선정되었다.

또 다른 New Prize인 탐음매니아상은 타 음악 시상식의 음악 평론가 또는 비평가 상과 같은 취지하에 제정된 상으로 첫 주인공은 <안녕 마음아>의 지선이 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관련사이트]

싸이월드 뮤직 페이지 music.cyworld.com

5-2. 푸조, 국내 최고 음악 페스티벌 '2009 통영 국제 음악제' 공식 후원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통영 국제 음악제는 오는 3월 27일 알렉산더 리브라이히(Alexander Liebreich)가 지휘하는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개막연주회를 시작으로 4월 2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된다.

푸조는 이번 '2009 통영 국제 음악제' 외에도 지난 2006년부터 "Style de Vie"(내 삶의 스타일) 고객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10개 이상의 문화 예술 공연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푸조 고객들을 초청하여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불모터스 송승철 사장은 "푸조가 프랑스 자동차인 만큼 문화 예술 분야에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통영 국제 음악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제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객들이 푸조와 함께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사이트]

보도자료 [한불모터스 2009. 3. 16]

푸조, 국내 최고 음악 페스티벌 '2009 통영 국제 음악제' 공식 후원 [YTN 2009. 3. 16]

5-3. [입찰] 2009 음악산업 동향분석 사업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내외 음악산업 관련 제도·정책 변화, 주요 업계 동향, 기술 개발 등 현황을 분석하여 급변하는 음악산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009 음악산업 동향분석 사업' 관련 위탁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사업명 : 2009 음악산업 동향분석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09년 12월
- 사업예산 : 35,000천원 이하(VAT 포함)
- 연구내용
 - 국내외 음악산업 관련 제도, 정책 및 시장 동향 조사·분석
 - 보고서 및 이슈페이퍼 작성 및 게시·배포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09년 4월 1일(수) 17:00까지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 빌딩 2층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경영지원팀 임규복 과장(☎02-2016-4015)

[관련사이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http://www.kocca.kr>

5-3. '서울재즈페스티벌 2009' 5월 14일 개막

국내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재즈페스티벌 2009'가 오는 5월 14일부터 나흘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서울재즈페스티벌은 2007년 퓨전 재즈계의 거장 팻 메시니를 비롯해 조 샘플과 랜디 크로포드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다른 음악 축제들과 확실한 차별성을 보이며 출발했다. 지난해는 2회째를 맞으며 매일 각각의 다른 테마 아래 크루세이더스, 인코그니토, 크리스 보티, 누벨 바그 등 개성 넘치는 뮤지션들을 초빙해 여러 계층의 음악 팬을 끌어안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올해로 통산 3회째가 되는 2009년의 서울재즈페스티벌은 지난 두 차례의 페스티벌보다 훨씬 대중적이고 다양해진 출연진 구성을 통해 '재즈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계속 추구해나갈 예정이다.

[관련사이트]

서울재즈페스티벌 , www.seouljazz.co.kr

Ⅲ. 해외 동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1. 소비자들의 음원 소비 트렌드 조사결과 발표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NPD는 최근 소비자들의 음원 소비 트렌드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CD 구매자 수는 1700만 명으로 하락했으며 CD를 구매하지 않는 주요 연령층은 10대와 50세 이상의 사람들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음원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수는 8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4000명 중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엔터테인먼트에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그 중 몇몇 사람들은 개별 트랙을 구매하기 위해서 전체 앨범을 사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다운로드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NPD는 소비자들이 SNS(Social Networks System)나 판도라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음원 사용과 판도라에 대한 인식은 작년에 비해 두 배 상승한 18%였고, 조사 대상 중 자신의 SNS에서 음악을 듣는 소비자들은 작년 15%에서 4%로 상승한 19%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Consumer Music Spending Trends: A Fresh Snapshot from NPD, Washington Post, 2009-03-17

1-2. 음악과 게임을 동시에! Loudcrowd 출시

인터넷에서 노래를 듣는 동안 게임과 SNS를 동시에 하기 원하는 음악 팬들은 이제 "Rock Bnad"와 "Guitar Hero"의 개발자들이 만든 Loudcrowd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이트는, 매년 텍사스 오스틴에서 음악, 영화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의 팬들이 모여 개최하는 Southwest Festival을 통해 지난 주 목요일,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Loudcrowd의 공동 개발자인 Dan Ogles는 이것을 음악과 게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가입자들은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플래시 게임을 할 수 있고 이 게임을 통해 음원을 얻거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다.

Loudcrowd는 광고가 없는 무료 서비스로, 아바타의 악세사리, 사이트에서만 쓸 수 있는 음원 등 가상의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만든다. 이 회사와 제휴한 음반 기업은 Beggars Group, Matador Records, 4AD, Rough Trade 등이며 주요 타겟 층은 대학생 연령대의

소비자이다.

[관련기사]

Web world for music fans hopes to gain following, The Associated Press, 2009-03-16

1-3. 주요단신

○ **EMI, 마틴 루터킹의 유산에 관한 계약 체결**

EMI Music Publishing은 목사 마틴 루터 킹 2세의 유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MI는 이러한 계약을 통해 마틴 루터 킹의 어록을 담은 음반이나 음원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그의 어록, 사진, 초상화 그리고 음악 없는 녹음된 음성에 대한 것들도 다루게 된다. 최근 몇 년 간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은 몇몇 가수에 의해 음악으로 만들어졌다.

[관련기사]

EMI Strikes Deal With Dr. King's Estate, New York Times, 2009-03-17

○ **Nelly Furtado가 자신의 음반회사 설립**

포르투갈계 캐나다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음반회사 프로듀서, 그리고 여배우인 Nelly Furtado가 자신의 음반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캐나다 독립 음반 기업인 Last Gang Labels와의 제휴를 통해 Nelstar를 출시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음반회사 설립을 통해 야심찬 가수들과 밴드들이 업계에서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녀와의 첫 계약은 토론토를 기반으로 한 일렉트로 팝 4인조인 Fritz Helder & the Phantoms가 체결했다.

[관련기사]

Nelly Furtado Launching Music Label, Hollyscoop, 2009-03-16

○ **CC의 App가 100만개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블랙베리 버전 출시**

Clear Channel Radio는 Apple의 iPhone에서 사용 가능한 자사의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iheartradio가 출시 된지 20주 만에 100만 번째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수는 매주 13% 상승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및 온라인 청취자를 위한 iheartradio는 CC의 청취자를 15% 증가시켰다. 이번에 출시된 블랙베리 버전은 현재 iheartradio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iPhone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콘텐츠를 지니고 있다.

[관련기사]

CC's iheartradio Gets Millionth Download, BlackBerry Beta, Streaming Magazine, 2009-03-16

○ **iPhone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음악적 기능 강화**

Apple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iPhone의 음악적 기능을 강화했다. iPhone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100가지가 넘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다. 따라서 Apple의 iPhone 사용자들은 지금부터 자신들의 음원 카탈로그에 대해 보다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음원 기업들은 iPhone과 연결된 새로운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급한다.

[관련기사]

iPhone Upgrade Boosts Music Features, Billboard Business News, 2009-03-17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2-1. 비, 800만달러 배상판결에 미국 활동 악영향 우려

하와이 공연이 취소돼 손해배상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한 가수 비(27, 본명 정지훈)와 그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배심원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 비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에 호놀룰루 공연을 취소한 손해배상으로 약 808만 달러(한화 약 112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프로모터들이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현재 로스엔젤레스 공연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와 JYP 역시 이 같은 배심원의 결정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양측은 모두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후 변호인단과 협의해 법적대응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남겼다.

[관련기사]

비, 800만달러 배상판결 '활동엔 큰 영향없지만..' 난항 예고 중앙일보, 2009-03-20
 '112억 배상 판결' 비, '예상 못한 판결에 실망'...항소 고려 마이데일리, 2009-03-20
 비·JYP 808만달러 거액 배상 판결 '왜?' 매일경제, 2009-03-20

2-2. 서울시 한류스타 팬 사인회 및 쇼케이스 등 명동에서 오픈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글로벌 문화체험에서부터 관광·축제·쇼핑·여행, 그리고 문화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서울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가 16일 명동에서 문을 연다.

「서울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는 다양한 문화체험행사와 외국어 및 한국어 강좌는 물론 문화 공연·이벤트도 연중 개최한다.

‘문화체험 행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공예, 음악, 음식 등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주한 외국대사관과 외국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각국의 문화강좌나 문화체험은 물론 영화도 상영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명동지역 상인들의 외국인 응대에 필요한 ‘실용 생활외국어 교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각종 이벤트가 펼쳐질 200여석의 다목적공연장도 마련되어 있어,

한국의 전통문화공연뿐 아니라 한류스타 팬 사인회 및 쇼 케이스, 소규모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명동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방문 외국인중 50%가 찾고 있는 명동에 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난 1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와 더불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련사이트]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는 게이트웨이 위콘(www.wecon.kr)의 ‘업계는 지금’ - ‘산업동향’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

팀장 이동주 (Tel. (02)2016-4010)

과장 김도윤 (Tel. (02)2016-4091)